



濁流清論

제54호 2018년 9월 14일(금)

발행인: 정 영 기 / 편집: 편집위원회

< 알려 드립니다 >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탁류청론은 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교수님들의 원고는 교수회 이메일 (jy717@ajou.ac.kr)로 보내주십시오.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위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u>더불어 푸른 솔밭에서</u> 총장 인사	1
<u>특집</u> 교무처의 주요 정책 방향 대학 경쟁력 지향 연구정책 으로의 대전환 우리 대학의 재정전망과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3
<u>소통과 담론</u> 아주대학교 교수님들께 긴급하게 알려드립니다.	9
<u>교수들의 건강칼럼</u> 백내장과 녹내장	10
<u>소식</u> 교수회 제91차 월례 대의원회	12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총장 인사

총장 박형주

안녕하십니까. 취임 6개월을 맞이해서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탁류청론 지난 호에서 ‘신임 총장에게 바란다’라는 특집을 통해 여러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큰 방향성에서 저와 다르지 않다고 느꼈고, 지면을 통한 대화와 소통의 유익성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 대학이 처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교육과 연구 그리고 재정의 문제에 대한 큰 틀의 점검과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학 운영의 큰 방향은 지난 2월에 취임사와 전체 교원 워크숍 인사를 통해 대강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인 교육과 연구에서의 성장을 목표로 캠퍼스 구성원들의 충의를 모아 구체적인 실행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자로 대학혁신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산하에 6개의 위원회와 6개의 실무 TF를 구성했고, 대학의 중장기 계획을 새롭게 설정하는 차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사업의 큰 틀이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되도록 바뀐 터라서, 지금이 이런 작업을 해야 하는 적절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만들어진 Vision 2023이라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아주 Great Turning이라는 발전 전략을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업데이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먼저 교육에 관해서는, 교육 과정 운영은 Student Success를 중점 가치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상당수가 졸업 후에는 전공 관련성이 적은 타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계에 의하면 절반이 넘는 학생이 이렇다고 합니다. 게다가 많은 직역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직역이 탄생하기도 하는 시대를 맞아서, 대학 전공과 졸업 후 진로의 불일치 현상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공 교육 잘 시켜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만드는 것을 대학 교육의 소명으로 여기던 관점이 지금도 타당하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분야에 대한 진출을 모색하는 학생들에게는, 강화된 기초 교육뿐 아니라 타 전공에 대한 학습 기회도 확대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학과의 칸막이를 낮추는 큰 방향성은, 혁신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여러 곳의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는 시점이 곧 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기초 교육의 강화가 전공 교육의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와 전공 및 학생 선택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교과과정의 큰 틀에서, 선택 부분을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더 심화된 전공 교육을 원하는 학부생들에게는 학석사 연계 과정에 대한 장학금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대학원 수준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합니다.

연구 관련해서는, 신입 교원 채용에서 연구력 우선 고려 원칙을 확립하고, 교내 평가에서 논문 수 등의 단순 수치보다는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의 활용을 늘리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학문 연구의 흐름이 고립된 개인의 연구를 탈피해서 연구 그룹을 형성해서 거대 주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이전 하고 있으므로, 교내 연구비 지원도 연구 그룹 육성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신입 교수에게 startup 연구비 또는 연구 인력을 지원하는 인큐베이션과 교내 연구그룹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연구비의 간접비 배분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주대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교내 연구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원하되, 선도적 연구 그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조기 발굴 노력도 할 것입

니다. 관련해서 교내에 빅데이터연구센터를 만드는 작업과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의 연구 그룹 구성이 시작됐고, 하반기에 예상되는 인공지능 대학원 국가지원사업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젊은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와 지원을 해야 하고, 교외 연구비 수주는 연구의 질과 파급효과에 대한 일차적 심사를 통과했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장려해야 합니다. 연구에 집중해야 할 젊은 조교수에게 일부 특수대학원이 추가 강의를 맡기는 관행을 전면 중단시킨 건국대의 정책은 아주대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재정 관련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아주대가 좋은 결과를 내도록 전력투구해주신 교직원께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문·이과 통합과 같은 큰 변화를 앞두고 내년부터 아주대학교 기초 과목의 수준별 수업을 위한 배치 고사 실시 등의 여러 가지 숙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입학, 교육, 연구 및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정책 결정 및 지원의 틀을 확립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므로, 현재 CTL의 데이터 분석 기능과 연구정보처의 연구데이터마트 기능 등을 통합하여 대학IR센터로 확대하는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사람의 손에 의지하고 있는 상당량의 행정 업무를 paperless office 구현과 AIMS3 조기 도입을 통해 체계화 및 자동화 하는 ‘행정의 업그레이드’도 시급합니다.

싱가포르의 난양공대가 산학협력으로 연간 1천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을 볼 때, 탄탄한 연구력에 기반한 산학협력은 재정 확충의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최근 몇 년간 산학협력 분야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지만, 활발한 산학협력을 위한 각종 제도 마련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를 교내에 유지하는 가능성을 포함해서, 현재 몇 개의 기업과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련해서는, 의료원과 공학대학원 및 약대 등의 협조로 800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 건축과 교내 wet lab을

모두 모으는 개념의 종합실험동(가칭) 건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종합실험동은 산학협력동을 겸하는 개념입니다.

대학 설립 50주년을 맞아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학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할 일이 많습니다. 교직원 및 학생과의 소통 채널 마련, 학생들의 캠퍼스 라이프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하는 방안 모색, 학생의 졸업 후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소양의 획득 기회 제공, 학문적 활동이 존중받는 문

화적 토양 구축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실행 가능한 액션 플랜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혁신위원회의 논의에 교수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과물로 만들어질 대학의 중장기 계획이 구성원의 지향과 꿈을 온전히 담아낸다면 대학의 큰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특집

교무처의 주요 정책 방향

미디어학과 장우진(교무처장)

대학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화가 함께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굳이 4차 산업 혁명이나 MOOC, 혹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따른 대학의 여러 위기감 등등을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이에 대한 인식은 우리대학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대학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기에 교무처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은 교육과 교원 측면에서 우리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 우리대학의 경우 현재 교무처장이 대학교육혁신원장을 겸하고 있기에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교무처와 대학교육혁신원의 업무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첫째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초연결 시대의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재 양성 교육 체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대학은 작년부터 인재상·핵심역량재정립위원회를 운영하여 올해 이 변혁의 시기에 적합한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재정의하고 핵심역량 및 각각의 하위요소를 새롭게 정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에 연계된 각 단과대학 및 학과의 교육목표와 인재상, 전공역량 등을 재검

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기초·교양교육혁신TF를 통해 우리대학에 적합한 기초·교양교육 강화 방안과 이를 위한 교육 혁신 체제 및 학사지원 조직 개편 방안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학문 중심 교육, 기술혁신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형 인재 양성 교육, 데이터 기반 분석·관리 체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TF에서는 우리대학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sites.google.com/a/ajou.ac.kr/generaleducationtf/>)

앞으로 학생 주도적인 창의융합 교육체제와 이를 위한 대학의 지원 체계, 그리고 전공 융·복합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학교 및 학과 발전 계획에 부합하는 우수 교원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전임교원 확보 문제는 교육의 질 관리와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통해 우리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적정한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초빙위원회를 통해 대학 발전에 부합하는 신규임용 TO를 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셈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전공 교육의 질과 균형을 고려한 TO 배분, 대학의 중점 분야를 고려한 정책적인 TO 배정, 그 외 발전 전략에 부응하는 TO 배정 등이 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수 신입교원 유치를 위해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리쿠르팅 노력을 확대하고, 신규임용 절차의 개선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학교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주신 교수님들을 명예롭게 대우해 드리는 방안을 더 강구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학습자 중심의 학사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중심이 티칭에서 러닝으로 바뀐 것은 여러 교수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학사 시스템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학습자 관점으로 검토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성적평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융·복합적 관점에서 학생들의 학문 간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높은 학점 취득이 아니라 학문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새로운 배움에 대한 도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성적평가 기준을 다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전공과목에 대해 해당 전공의 수강생들은 현재와 같이 상대평가를 적용받도록 하되, 타 전공 수강생의 경우 상대평가 방식과 P/F평가 방식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한, 절대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2018-2학기에 몇 개의 과목을 지정하여 절대평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학습부진자를 위한 관리 및 각종 지원 체계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대학은 학사경고 누계 3회 때 제적이 되는 엄격한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계 2회 차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습전략을 강

화해 줄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15차시)을 신설 운영하고, 해당 학기에 비교과 프로그램의 이수기준과 해당 학기 평점 2.00 이상을 받을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해 최근의 학사경고 1회를 삭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교수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통합상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학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도탈락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대학에서는 이미 전공 학년 제한 폐지가 결정되어 2018-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공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입학 때부터 전공을 결정해야 했던 우리 학생들에게 전공제도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스스로의 확신에 따라 전공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무처의 주요 정책 방향을 말씀드렸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논의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항상 교수님들의 건강한 비판과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 개진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구성원의 협조와 공동의 노력을 통해, 그 동안 국내 대학교육의 혁신을 선도했던 우리대학이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서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교육과 교원 측면에서 경쟁력 높은 우수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특집

대학 경쟁력 지향 연구정책으로의 대전환

전자공학과 오성근(연구정보처장)

안녕하십니까? 방학은 잘 보내고 계신지요?

박형주 총장 부임과 함께 3월부터 연구정보처장의 직을 맡은 전자공학과 오성근 교수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학교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다양한 의견도 들으면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정책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정책 방향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연구정책 및 추진 전략은 추진 중에 있는 중장기 대학발전계획이 수립되면 구체화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구정보처는 연구정책 수립, 연구실적 관리, 연구활동 지원, 교내 연구비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팀과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정보보안 등의 관리, 운영, 유지보수,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시스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산학협력단은 외부과제 수주 및 관리, 산학협력 등 주로 산학연관 대외협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는 우리 학교가 지향해야 하는 연구정책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가 지향해야 하는 연구정책의 큰 방향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는 연구정책으로의 대전환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연구정책 방향의 중요 키워드로 연구비 실효성, 질적 평가, 공통 키워드 기반 거대 연구그룹 발굴·육성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위의 키워드들은 독립적이라기보다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 인프라 및 교원 인사 시스템 등과도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내 연구비 지원의 실효성이 증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경쟁력을 가진 연구그룹, 경쟁 잠재력을 가진 연구그룹 및 전략적 연구그룹을 발굴하고, 이들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비 지원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비 대

비 연구 성과가 크지 않은 연구비의 비중을 줄이거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경쟁력 있는 개인 연구자에 대한 고려는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다수의 연구그룹 또는 연구자를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대학평가에서 단순 저널 인용지수(Impact Factor) 및 논문 수 보다는 논문 인용수(citation), 특히 세계적인 경쟁력 평가에서 주로 채택되고 있는 분야 정규화 피인용지수(Scopus 학술DB 기반 FWCI: Field-Weighted Citation Index 또는 Web of Science 학술DB 기반 CNCI: Category-Normalized Citation Index, h-index 등)의 비중을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의 연구실적 평가도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교내 연구비 성과목표에 질적 평가지표를 반영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아주연구자 및 아주우수논문상 시상에도 질적 성과지표를 반영할 것입니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입교원 채용이나 승진/성과승격 제도에도 양적 성과지표뿐만 아니라 질적 성과지표를 충분히 반영하는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 개인뿐만 아니라 연구집단, 학과, 단과대학 등의 연구성과 모니터링, 벤치마킹, 대외협력, 연구 트렌드 등의 계량화된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대학 경쟁력 정책 수립, 연구정책 수립, 교직원 인사 정책 수립, 연구그룹 발굴·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세계적인 학술DB 기반 연구분석 솔루션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자 개인의 경쟁력보다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다수의 연구그룹 육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6페이지에 계속

이를 위해서는 공통 키워드 기반 거대 연구그룹의 발굴과 우리 학교의 강점 분야, 잠재적 강점 분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거나 학교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전략 분야들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데이터 기반 공통 키워드 검색 및 분야별 성과 지표 분석을 통하여 강점 분야 및 잠재적 강점 분야를 발굴할 것이며,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략 분야를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점 분야, 잠재적 강점 분야 및 전략 분야의 교내 연구자 그룹을 찾고, 이들을 한 자리에 모아 경쟁력 있는 연구그룹 결성을 돕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 것이며, 필요시 정책 과제 수행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연구그룹 결성과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TF를 구성하여 정책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6월말에는 의료원, 산학협력단, 연구정보처를 포함한 대학 차원의 연구정보(연구과제, 연구실적, 발명실적, 기술이전 등)을 통합한 연구데이터마트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연구자 분석 및 빅데이터 연구자 그룹에 이은 후속 연구자 그룹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산학협력단지 교내 유치 유관 분야, 학교 주변에 위치한 CJ 연구소 및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과의 협력 분야,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의 협력 분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산업체와의 협력 분야들을 발굴하고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경쟁력 있는 연구그룹을 중심으로 한 대학원 특성화 계획과도 연계하여, 2년 후인 2020년에 진행될 BK+ 후속사업 신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전략적인 지원에는 연구지원뿐만 아니라 교원 채용과 인프라 지원, 산학협력 지원 등도 병

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연구정책 방향들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들의 많은 도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녹록치 못한 환경에서도 우리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주신 많은 교수님들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국내외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의 정책 방향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정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학 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종적인 연구정책 방향과 전략 수립이 완성될 것입니다.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소위원회(위원장: 연구정보처장)와 연구TF(위원장: 최기주 교수, 단과대학별 추천 인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소위원회 및 연구TF 위원의 명단은 7월 3일자 교원인사발령 69호(위원회 임명) 공고를 참조하시고, 저를 포함한 위원들에게 의견을 주시면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유익한 방학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특집

우리 대학의 재정전망과 재정책중 방안에 대하여

미디어학과 최 정 주(기획처장)

지난 8월 23일 법인 이사회에서 2018학년도 본예산 대비 136억 원이 증가한 2,74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국고사업 추가 유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특수대학원 학생수 증가에 따른 수업료 수입, 외국인 학생 증가에 따른 국제교육센터의 수입, 산학협력단 전입금 수입, 공동기기센터 및 창업지원단의 분석료 및 사용료 수입 등 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외형으로 드러나는 수입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외형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책임운영부서의 간접비 납부 비율 10%p 인상에 따라 대학 전체의 자금활용 여유가 증가한 것도 대학재정운영의 관점에서 희망적이라 할 것입니다. 1차 추경에 따른 주요 재정지표는, 총수입 대비 등록금 수입 비중은 44.8%, 등록금 수입 대비 교육비 환원율은 263.1%, 운영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은 53.4%, 법정부담금 비율은 77.7%, 학부생 장학금(국가장학금 제외) 비율은 18.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재정목표 대비 인건비 비중은 악화, 법정부담금 및 장학금 비율은 개선의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등록금 수입이 사실상 동결됨에 따라서 등록금 수입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환원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표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대학의 운영을 위한 자금 수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은 2017년 통계 기준 OECD 국가 2위 수준으로 나타나 1인당 실질 등록금 인상은 단기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국가적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대학의 정원증원이 불가능하므로 등록금 수입 총액의 증가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투자비율이 6.3%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정부의

추가 재정투입을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의 공교육 투자에서 고등교육비 부담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있어 대학재정에서 국고수입이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교육부 예산(안) 중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 규모가 전년 대비 28%, LINC+ 사업은 25%, BK21+ 등 학술연구 지원 예산은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예상은 일정 부분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재정책중을 위하여 정원의 재학생 규모 확대, 기업 및 지자체 대상 위탁교육 확대, 후진학자 및 일반인 대상 평생교육 체제 검토, 외국인 대상 어학교육 기반 확충 등의 교육 서비스 제공 방식을 다양화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가)선정된 우리 대학은 더 많은 일반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이미 선정된 LINC+ 및 BK21+ 등의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을 계속 혹은 확대 유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으로 대표되는 정원의 재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국제교육센터의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하여 AKP, AFP 등을 확대운영하고, 기숙사 신축을 통해 외국인 학생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및 국내 학생이 우리 대학에서 수학하는 것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수단으로써 국내외 대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수치로 나타내는 국내외 대학평가의 종합평가 순위는 최근 3년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THE, QS, Reuter 등 해외 대학 평가 순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학생

대상의 홍보수단을 잃고 있다는 판단 아래, 대학경쟁력 강화위원회와 실무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 발굴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대학혁신위원회와 6개 소위원회 및 TF를 구성하여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은 교내 구성원들이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2019년도 교육부 예산중에서 평생직업교육 관련 예산이 25% 증액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대비와 청년실업난 해결은 국가적 의제이므로 평생교육관련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대학도 지난 4년 동안 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재직자특별전형 학과를 설립하는 등 이와 관련된 노력을 해왔습니다. 향후 4년은 평생교육원을 포함한 대학의 평생학습체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BK21+와 LINC+ 사업 등 특수목적 재정지원 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대학원, 산학협력단, LINC사업단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국가연구 개발사업과 산학협력사업을 통해서 대학 재정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종합실험동을 신축하는 재정적 투자를 통해 연구기반을 확충하고 기업연구소의 유치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 대학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재정적인 도움 이외에도 수출된 교육과정에 따라서 훈련받은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대학원으로 유입시켜 결과적으로 대학의 연구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한 검토입니다.

우리 대학은 설립 50년 이하의 대학으로 국제적 기준으로는 젊은 대학(Young Universities)으로 분류됩니다. 세계적으로 젊은 대학이 성장하는 토대는 HKUST(홍콩과기대), EPFL(로잔공대), NTU(난양이공대), KAIST, POSTECH, UNIST 등 국내외의 사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결국 대학의 연구력입니다. 대학 연구력의 원천은 교수의 연구력이며, 일반대학원의 기능과 역할 강화가 교수 연구력 향상의 기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재정적 혹은 정책적 수단이 교수의 연구력 향상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수와 대학원의 역량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학이 성장하면 앞서 언급한 재정책중 방안의 토대가 상당 부분 마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학재정의 문제에서 교수 연구력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이는 우리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교수의 역할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소통과
담론

아주대학교 교수님들께 긴급하게 알려드립니다.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교원 임용권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관에 따르면 교원의 신규채용, 승진, 재임용(직위해제, 정직, 면직, 해임, 파면 역시 마찬가지)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동의를 구한 후 총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이사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 마디로 교원 임용권을 총장이 아니라 이사장이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법인은 개정의 근거로 교육부 지적사항을 들고 있습니다. 즉, 대우학원이 2017 년과 2018 년 두 차례 정관변경 사항을 교육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에 대하여 2017 년과 2018 년 대우학원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두 해에 걸친 공통적인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바로 정관 46 조 교원 임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정조치 요구 문건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제2항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위임한 임용권에 대하여 이사회가 임용 동의 의결하는 것은 학교법인 이사회가 실제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행위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수 임용권을 총장에게 위임했다면 이사회가 임용동의 절차를 통해 뒤에서 총장을 조정하지 말고 총장에게 자율권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은 이러한 지적사항을 교묘하게 되치기 하여 ‘그렇다면 법인이 임용동의를 하는 대신 직접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뒤에서 보이지 않는 압력 행사 말고 총장에게 학교 운영의 실질적 자율권을 보장하랬더니(뒤에서 조정하는 것이 위법이라니)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식입니다.

재단의 의지대로 정관이 개정 될 경우 학교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수회는 재단의 정관 개정 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반대하며 재단의 행동을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첫째, 교수사회와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될 위험성이 큼니다. 임용권자가 공식적으로 총장에서 이사장으로 바뀌면 법인의 전횡이 법적 효력을 얻어(그렇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법인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권한이 집중되면 농단의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격언을 새겨야합니다.

둘째, 정관이 개정되면 총장의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일반 교수들의 임용권마저 이사장에게 귀속되면 총장은 실권도 없고 아무런 권위도 없는 바지 사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총장은 교수사회와 재단 사이에서 조정 및 완충역할을 할 수 없고 오로지 재단의 지시사항을 집행하는 집사 우두머리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셋째, 임용권의 변경은 학교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한 마디로 견제 받지 않는 세력이 행하는 독점의 폐해가 고스란히 대학사회에 전가될 것입니다. 권한이 집중되면 이사장 한 사람 눈치만 보며 형성된 “그들만의 리그”가 갑질을 통해 대학사회를 피폐하게 만들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그나마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아주대학의 현재 위상이 3류 “퐁퐁” 대학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초창기 대우 학원의 훌륭한 원칙은 그간 여러 번 시련을 겪었습니다. 정관이 개정된다면 “지원은 않되 간섭은 최대화 하겠다”는 새로운 대학 운영 원칙이 정립될 것입니다.

향후 교수회는 이번 개정의 진의가 무엇인지 관계요로를 접촉하여 면밀하게 추적하고 그 사실을 교수사회에 알릴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대학의 자율성 뿐 아니라 교수 개개인에 미치는 이해관계가 중차대한 만큼 교수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해보다 더운 여름 연구와 교육 준비에 매진하시는 동료 교수님들께 시원한 소식 못 전해드려 송구합니다.

2018 년 8 월 6 일

아주대학교 교수회

백내장과 녹내장

의학과 안과학교실 안재홍

들어가는 말

백내장과 녹내장은 이름도 유사하지만 전 세계 실명을 유발하는 질환에서도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두 질환 다 적절한 시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실명에 이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녹내장은 회복 불가능한 실명에 이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점에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더욱 요구되는 질환이다.

본다는 것 그리고 백내장과 녹내장의 차이

눈을 통해 세상을 인지하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이다. 빛 에너지가 눈을 통과하면서 눈 안의 특정 세포를 자극하여 일종의 화학반응을 유발하고 전기 자극으로 변환된 에너지는 시신경이라는 일종의 전선 같은 구조를 통해 뇌로 전달된다. 눈에서 빛이 도달하는 부위를 망막이라고 하고 망막의 특정 부위에 도달한 빛은 복잡한 연계과정을 거쳐 뇌의 특정 부위에 도달하게 되어 사물의 형태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된다. 그 과정이 얼마나 정교한지 손상된 시각 경로를 원상 복구하는 기술은 아직 요원하고 알면 알수록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다. 백내장은 망막에 빛을 모아주는 수정체라는 구조가 혼탁하게 변하는 질환이며 녹내장은 망막에서 뇌로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인 시신경이 손상되어 망막에는 빛이 정상적으로 도달하지만, 뇌로 전달되지 않아 시각 기능을 잃게 만드는 질환이다. 환자에 따라서는 두 질환이 함께 있을 수도 있다. 백내장의 치료는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대신 삽입하여 원래 수정체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며, 녹내장의 치료는 시신경은 손상이 진행되면 다시 회복될 수 없기에 시신경이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손상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여 손상이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어 주는 것이다.

백내장과 녹내장이 있을 때 느끼는 증상

시력은 일정한 거리에서 얼마나 작은 글씨를 알아볼 수 있는지로 시각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시야는 보이는 범위를 이르는 말인데 눈을 돌리지 않고 한 사물을 본 상태에서 보이는 범위가 그 눈의 시야라고 보면 된다. 백내장의 주 증상은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며 시력이 저하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반면 녹내장은 많이 진행되었을 때가 되어서야 시력 저하를 인지하게 되며 초기에는 시력보다는 시야의 일부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나중에는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시야는 눈을 돌려 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나빠지기 전에는 이상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백내장은 비교적 초기에도 증상을 느껴 발견하기가 쉽지만, 녹내장은 상당히 진행되어야 증상을 느끼기 때문에 녹내장으로 불편을 느껴 병원을 찾으면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백내장의 증상 중 주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어두운 곳에서는 시력에 문제가 없는데 환한 곳에 나가면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를 일컫는다. 혼탁한 부위가 수정체의 가운데에 국한되어 있어 환한 곳에서 동공이 작아지면 망막으로 전달되는 빛이 차단되어 시력이 감소하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확장되어 혼탁한 수정체 주변으로 빛이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시력이 개선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백내장의 초기에는 가까운 곳을 보는 기능이 향상되어 멀리 있는 사물을 보는 능력은 감소하지만, 근거리 시력이 개선되어 노안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였다면 백내장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백내장과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두 질환 모두 시각 기능과 관련된 질환이므로 위에서 언급한 증상이 있다면 안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백내장은 조기에 증상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지만, 한쪽만 발생

한 경우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모를 수도 있으므로 번갈아 한눈을 가리고 비교해 보아야 어느 쪽 눈이 더 나은지를 알 수 있다. 녹내장의 경우에는 조기에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건강 검진이나 안과에 방문해서 눈 검사를 받아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인 건강 검진에는 안압(눈의 압력) 측정은 포함되어 있지만, 안저촬영(망막과 시신경을 촬영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녹내장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녹내장은 안압을 측정하거나 녹내장을 시사하는 시신경 소견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검진 항목에 안압과 시신경 촬영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시신경이 정상이라도 향후 녹내장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고 안압이 정상 범위에 있더라도 시신경 모양이 녹내장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인다면 녹내장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백내장과 녹내장의 치료는?

백내장 수술은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여 다시 선명한 상을 맺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인공수정체는 노화가 오기 전의 수정체가 갖고 있던 조절기능(거리에 따라 초점을 맞추어 주는 기능)이 없으므로 수술 후에 돋보기나 안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다초점 인공수정체인데 다중 초점구조로 되어 있어 먼 곳과 가까운 곳을 어느 정도 다 잘 보이게 해 주는 장점이 있다. 노안 교정술은 바로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여 가까운 곳과 먼 곳의 시력을 동시에 개선해 주는 수술이다. 그러나 아직 보형 적용이 되지 않아 고가이고 기존의 인공수정체보다 선명도가 다소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수술 전에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녹내장 치료의 주된 목표는 안압을 일정 수준으로 낮추어 시신경이 손상되는 속도를 늦추어 주는 것이다. 시신경의 손상은 녹내장이 일단 발생한 경우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진행을 100% 막는 것은 어렵지만 생존해 있는 동안 실명에 이르지 않도록 진행하는 속도를 늦추어

주는 것이 녹내장 치료의 목표가 된다. 안압을 낮추어 주는 방법으로는 약물(녹내장 안약)과 레이저 및 수술적 치료가 있다. 수술을 포함한 녹내장의 치료란 백내장 수술처럼 원인이 된 구조를 대치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안압을 낮추고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여 시신경의 손상을 막자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비유하자면 암세포를 제거하듯이 녹내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을 관리하듯이 녹내장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뜻이다.

백내장과 녹내장을 예방하려면?

백내장 예방 수칙으로 늘 강조되는 것은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좋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지나친 음주와 흡연도 백내장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녹내장은 초기 증상이 없으므로 안과 검진을 가능한 이른 나이에 받는 것이 유일한 예방법이다. 안압만으로는 녹내장 진단을 할 수 없으므로 국가 검진 항목에 안저촬영이 필수 항목으로 포함되면 좋을 것이다.



소식

교수회 소식

제91차 월례 대의원회 개최

지난 8월 9일 오후 5시 율곡관 151호 영상회의실에서 제91차 월례 대의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논의사항으로는 재단의 교원 임용권 정관 개정 시도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여 교수회 대의원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의결하였습니다. 성명서는 지난 8월 13일 전체 교수들에게 메일로 공지하였으며, 해당 성명서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교수회에서는 매 학기 월례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수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위원회: 윤호섭(편집책임),
김상배, 김종식, 윤호섭, 이재호